

[인터뷰] 최은석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윤 이은용 기자 | ⓒ 승인 2022.06.24 09:20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이바지
기후변화 따른 가뭄 피해 증가 맞춤형 대책 피해 최소화
농어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적극 추진
농업시설 재투자 농업인에게 환원 영농편의 도모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규모 홍수나 가뭄, 폭염, 한파 등 시시각각 예측 불허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잦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록적인 장마가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많은 시설과 농작물 피해로 이어진 바 있으며, 냉해와 폭염 등도 수시로 발생하며 안정적인 식량생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나라에서는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에서 농업용수 확보나 시설관리, 수리보수 등의 작업을 통해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불철주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최은석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에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다.



최은석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수자원관리처가 하는 사업은.

"수자원관리처는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배제를 위해 수리시설감시원 및 자율 관리구 운영, 수초·퇴적물 제거 및 예초사업 관리, 농업용수관리자 동화 사업, 수자원시스템 계측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한해,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해복구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해 수리시설물의 파손 및 기능저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 농업은 ICT-IoT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수자원관리처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흐름에 맞게 농업용수 관리 통합DB 구축으로 빅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지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해 스마트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재대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중요

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를 목표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관리,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사고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사는 100년 역사를 지닌 땅과 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수자원관리처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급배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면적 47만 6,000ha, 농업기반시설 1만 4,000여 개소, 용배수로 9만 9,951km 등을 관리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대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뭄문제가 심각하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

“공사에서는 전국 9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가뭄대책 사업을 추진해 지역 농민들이 물 부족에 따른 영농불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이양수장 설치를 통한 용수확보 대책 수립, 비상급수 관로 설치, 용수로 바닥 준설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가뭄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재해대비·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의 수원공 시설과 개수로, 관수로 등의 평야부 수로 시설을 정비해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수계연결형)을 활용해 가뭄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아산-삼교-대호호의 수계연결을 통해 물 부족이 심한 대호호의 용수공급으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해 보다 적절한 시기의 가뭄대책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하는 모습.

-물 관리 사업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은.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양이 방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용수의 합리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리시설관리 효율화, 농어촌용수관리 및 공급 기본전략 수립 등을 통해 농업용수의 수량·수질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공사에서 추진하는 물 관리사업 만으로는 농업용수의 예방적 확보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가뭄이 심각해 농업용수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공사가 합심해 농업용수 관리에 자발적인 참여가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농업관련 전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용수 절약 및 수질확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깨끗하고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현황은.

"온실가스에 포함돼 있는 탄소는 장기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온난화 현상에 따른 각종 기상재해를 발생시켜 농업 생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소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

고 있으며, 농어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추진해 정부와 민간이 온실가스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은.

“공사는 2012년 청호저수지를 시작으로 저수지 수면위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은 크게 전자파와 수질오염 문제가 두각 돼 왔습니다. 우선 전자파에 의한 피해조사의 경우 소량의 전자파(약0.076mG)가 발생되긴 하나 이는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는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 및 국립전자파연구원의 연구결과로부터 입증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의 경우 2019년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4차례에 걸쳐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합천호 모니터링 결과 수상태양광은 환경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태양광모듈 세척제와 관련해 공사는 원칙적으로 세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경우 물을 이용해 모듈 표면을 닦도록 하고 있어 세척제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무엇보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은 기존 민간투자 사업자들과 다르게 재생에너지 건설 시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마을발전소 건설과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채권참여 등을 통해 농어촌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 등으로 재투자해 농업인에게 환원해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용 기자